

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비율 합의

제2회 전북교육행정협의회
“학생 먹거리만큼은
차질없이 제공해야”
서 교육감 철학 반영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필요경비 등 인상 지원도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 교육협력의
눈에 띈다.
양 기관이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최
종 합의한 것이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서거석
교육감과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
의회를 열고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분
담비율을 교육청 50%, 지자체 50%에
서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조정하
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로 전북교육청은 무상교육
비를 115억원 추가 부담하게 됐다.
이는 도교육청 예산이 2023년 5,824
억원, 2024년 5,828억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특히 추가 부담 합의에 대해 자라는
학생들에게 먹거리만큼은 차질 없이 제
공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반
영됐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날 전북도의회 김명지 교육위원장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2023년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김관영 도지사가 무상급식 분담비율과 관련 최종 합의했다.

의 적극적인 중재도 양측의 합의에 큰
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
한 필요경비와 무상교육비를 인상해
지원하자는 내용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는
월 13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월 10만원에서
13만8,000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공·사립 유치원에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교육과 돌봄의 격차
를 해소해 무상교육 및 보육이 실현되
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으

자”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민의 영유아
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도청이 다각적
으로 협력을 시작했다”면서 “역대 최
대 규모의 세수결손에 따라 양 기관
모두 어려움이 있지만, 성공적인 유보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청과 협의
해 나갈 것”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2023 전북교육정책연구 프로젝트팀 연구보고서 발표회

전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부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
소)는 지난달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달간 2023 전북교육정책연구 프로젝
트팀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3일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교직
원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할 프로젝트팀을 선
정·운영, 올해 선정된 12개 팀의 연
구 결과를 발표했다.
각 프로젝트팀의 주제를 살펴보면
△B 초등교육 프로그램(PYP) 실행 연
구 △디지털·AI 기반 수업 모형 개발
△통합운영학교 실행 및 대응 방안 △
교육문화회관 발전 전략 △기후 위기
및 탄소 중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이다.
전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장익
원장은 “현장 교직원 프로젝트팀 정책
연구 성과 발표와 나눔을 통해 전북교
육 정책이 빠른 시간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기대한다”면서 “우리 연구원
에서는 교직원의 전문성 함양과 더불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산·학 협력 글로벌 시대 새 도약’

전주대 ‘JJ 테크노 페스타’
올 LINC 3.0 사업 성과 보고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작품 전시·시상식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3
일 하림미션홀에서 ‘2023 JJ Techno
Festa’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통해 △2023년도 LINC 3.0 사업 성과
보고회 △산업통상지원 R&D 전략기획
단 김현철 MIX(본부장)의 명사 특강
△(사)캡스톤디자인진흥원 노상훈 원장
감사패 증정 △제이비이에스 정방수 대표
의 48개 가족회사 명패 증정 △캡스톤
디자인경진대회, 현장실습수기공모전,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우수작품 전시
및 시상식을 가졌다.
특히, 이날 제21대 국회의원인 안호



전주대학교는 3일 하림미션홀에서 ‘2023 JJ Techno Festa’ 행사를 개최했다.

영 의원, 김성주 의원, 정운천 의원,
강성희 의원과 전라북도 기업 기관,
대학생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전주대학교 관계자는 “‘지·산·학·연
협력 글로벌 시대 새로운 도약’이라
는 주제로 이번 산학연협력 한마당을
개최했다”며 “전주비전대학교, 군장대
학교, 전주지전대학교와 공유협업을 통

한 4개 대학 연합 캡스톤디자인경진대
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협력의
장이 됐다”고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지·산·학·연 협
력 선도대학으로서 글로벌 시대 다양
한 협력과 상생을 통해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성과 공유

전주대, 전북·전남 등과
성과교류회 공동 개최
특강·연구논문 발표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3일 이들 동안 전북대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 참여대학의 연구성과 공유
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
원부 지원으로 지역별 에너지산업 융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이 입
주기업과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교육과정 운
영을 통해 산·학이 함께하는 기업 맞춤형
교육·박사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
하는 것으로 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
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류회에는 전북 광주·전남,
충북 지역 지자체, 13개 참여대학 대
학원생 교수,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해 특강 및 연구논문 발표가 이어
졌다.
또한 이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함께 해 에
너지 인력 양성사업의 성과 공유 및



전주대학교는 지난 2~3일 이들 동안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 참여대학의 연구성과 공유 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

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별 인재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성과교류회에서는 현장평가를 통해
도지사·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상 4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상 3명, 4개
주관기관 원장상 19명 등을 시상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전주대학교 대
학원 박경수전기전자공학과 학생이
도지사상을 받았고, 포스터 부문에서
도 전주대가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상

을 수상했다.
전주대학교 과제 책임자인 김은수
교수(전기전자공학과)는 “에너지 분야
의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
화해 기업의 인력 수요를 해소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함으
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전주대학교 전
력전자 연구실로 자리매김해 나가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공모 시작

내달 8일까지 모집... 8명 선정해 시상키로

이 시대 참 교육자를 뽑는 제5
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공모
가 시작했다.
3일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
회에 따르면 오는 12월 8일까지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재균 위원장, 이강선
집행위원장, 박효정 사무총장 등
30여 명의 시민공동체로 구성됐다.
이 상은 공적이 화려하지 않아도
학생을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헌
신한 교직원을 발굴해 응원하는
것이 이 상의 취지다. 이와 함께
귀감이 될 만한 교사·교직원을
발굴해 학생의 스승에 대한 존경
과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다.
추천 대상은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5년 이상 경력의
가졌으며, 학부모·학생 등 도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이다. 분야는 초등, 중등, 고등, 교
육전문직 및 행정직, 교육공무직,
대안학교 교직원 등에서 8명을 선
정할 예정이다.
이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시민이
직접 좋은 교직원을 추천하고 칭
찬하는 상이다.
신청은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명부, 공적조서, 공적증빙자료, 재
직증명서, 수상후보자동의서, 증명
사진 등을 이메일 (arumdan@
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두재균
위원장은 “묵묵히 귀감이 된 교
사·교직원들은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는 스승에 대
한 신뢰를 회복하며, 지역사회에서
는 공동체 의식을 돈독하게 해주는
토대를 만들고자 기획했다”고 말
했다. /정은성 기자

대입 대면 진학상담 95.8% ‘만족’

960여명 이용... 도교육청, 수능 이후 정식 집중 대면상담도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운
영하는 권역별 대면 진학상담 만족도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에게 정확한 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권역별 대면 진학상담을 진행,
이에 따른 만족도가 매우인족 71%, 만
족 24.8% 등 95.8%에 달했다고 밝혔
다.
이는 진학상담을 받은 내담자 중 실
문에 응한 5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보통은 3.8%, 불만족은 0.4%
에 불과했다.
권역별 대면 진학상담은 분청 및 6

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 963명의 학
생·학부모가 권역별 대면 진학상담
을 이용했다.
진학상담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학
부모는 전북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
(https://www.je.gokr/jimo)에 접속해
‘대입 대면상담 신청’ 배너를 클릭하
면 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10년 이상의
진학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 구성
된 대입지원단 상담팀이 열정적으로
진학상담에 임하고 있다”면서 “수능
이후에는 정식 집중 대면상담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원격연수 운영

10일까지 신청...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위탁으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
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인력센터는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
의 교육활동 보호 및 치유를 위해 교
육활동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원격직무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월 13일부터 12월 7일까지 교육사
랑원격연수원에서 위탁 운영된다.
이번 원격연수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이 보호되고 교육활동 침해 시 적절하
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나이가 교사의 자긍심과 행복감 증진
으로 활력있는 교직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연수는 필수 1과정(15시간)과 선택
10개 과정 중 1개를 수강하는 방식으
로,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

과 교육전문직원 350명을 지원할 예정
이다.
필수 과정은 ‘사제로 이해하는 교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이야기’이
고, 선택과정은 △마음치유와 성장을
위한 멘탈관리법 △토닥토닥, 선생님
의 마음 챙김 △교사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다! 교사 성장 프로젝트, 슬기
로운 교직 생활 △행복교사 프로젝트,
교사 스트레스 관리하기 등이다.
한편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오는
10일까지 교육사랑원격연수원 홈페이
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교
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력 회복
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면
서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교사와 학
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교원 학생평가·기록 전문성 신장

도교육청, 중·고교 업무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
원의 학생평가·기록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창조내내 시청각실 및
세계평화의정당에서 중·고등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및 학
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현장 교사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
리였다.
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및 2028년 대입제도 개편 시간 등 교
육환경 변화에 맞춰 내신 절대평가 신
뢰도를 높이고 서·본술형 평가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연수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

령 및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와
학생부 기재 내용의 단위학교 자체 점
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
는 역량 중심, 과정중심 평가 등을 고
려해 학생의 발달과 성장 과정을 기록
할 수 있도록 교과세특 등 서술형 항
목 기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
계 강화를 도모하고 교사들의 평가·
기록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